



부드럽게... 강인하게...

# 꽃심으로

## 크고 작은 성과 거뒀다

###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고자 쉼 없이

노력했던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전주의 2016년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성과를 내놓은 한해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시의 한해 값진 성과를 뒤돌아본다.

###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도시

전주시는 올 한해 동네별로 직접 찾아가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며, 다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특히,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동네복지의 씨앗을 전주의 곳곳에 뿌렸다. 대표적으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희망 좁는 손수레’, 소아환자 안심 진료를 위한 365·24 아동진료실 운영,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치과병원 운영,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전주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또 장기연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서민 46명의 부실채권 2억5000만원을 소각해 빛을 탐감해주고,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효성 부도입대주택 문제 완전 해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12개소, 48명) 설치·운영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했다.

###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 꿈 키우

시는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우선, 세계적인 여행지인 ‘론리 플래닛’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 중 전주한옥마을을 3위로 선정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했다. 대도시권에서는 유일하게 전주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확대, 재인증을 받으면서 전통과 자연,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관 협치가 실현됐던 전주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유적지와 전적지

를 연계하는 전주동화농민혁명 역사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동화농민혁명 역사관 조성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또 조선시대 전라감사가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던 선화당 등 전라감영 내 주요 건물의 위치를 찾아내면서 감영의 재창조 복원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시민들의 삶의 기억을 담은 소중한 자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전주시 미래유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또 전주부성이 자리했던 중앙동, 풍남동 일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보존·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따뜻한 경제의 씨앗 뿌리다

시는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며 따뜻한 경제의 씨앗을 뿌렸다. 먼저,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신성장산업인 3D프린팅산업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저변확대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공역 조성 등 ICT융복합 드론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미디어파사드와 디지털사이네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구축했고, 탄소복합재 상용기술센터 건립, 영국 AMRC 한국분원 설립, 세계 7개국 15개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전주의 위상을 굳혔다. 시는 또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총 12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고, 94개 기업에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을 지원했으며, 감소 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

과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향토기업 육성에 집중했다. 시는 또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드는 ‘청년 희망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35% 이상 지역 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현 재 입법 발의된 상태다. 이외에도,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주권 회복 등을 위한 전주푸드 직매장 2·3호점 개장 등 전주푸드 2025 플랜에 속도를 내며, 행복의 경제학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와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공동체’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했다.

### 전주다운 공간 재창조... 첫걸음 시작

시는 전주의 도시공간을 역사와 문화, 생태를 연계한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특히, 전주의 관문에서부터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한 첫인상 프로젝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36년 만에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1981년 신축된 이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역사도 국토교통부가 역사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기로 하는 등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나아가, 새 단장될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생태·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첫 마중길 조성사업도 시민 희망나무 헌수 행렬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 60년 만에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춰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 노선을 6개축으로

늘리는 등 개편을 마무리했으며, 내년 2월부터 적용 운행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문화재생산업에 본격화했다. 우선, 폐공기(2필지)와 성매매업소(2필지)를 매입해 설치미술가 전시회를 열었다. 또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센터를 건립기로 해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전주동물원은 개원 이후 38년 만에 전시장 개념이 아니라, 동물들이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속도를 냈으며, 아중호수 주변을 호반도시로 만들기 위한 아중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영재 기자



### 외부에서 바라본 2016 전주

평가기관	성과	평가내용
론리 플래닛	3위	2016 아시아 최고 여행지 3위
문화체육관광부	1위	지역문화지수 조사 전국 1위(229개 지자체 중)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1위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2015년 정부 3.0 평가 협업분야 최우수기관
행정자치부	행정부장관상	2015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최우수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적경제·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3위	지자체 생산성 평가결과 25만이상시 36개중 3위
고용노동부	장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5년 연속 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우수
보건복지부	우수	공립요양병원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민통합위원회	최우수	국민통합 우수사례 ‘다들미팅’ 최우수상
김시원	김시원장상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모범사례로
환경부	최우수	최상위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장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헌신 우수
중소기업청	대통령상	남부시장,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년 연속 수상
(사)한국환경경제회	환경부 장관상	자연환경대상 공모 최우수상 수상

### 부록

#### 김승수 시장 ‘독심’ 시정 성과를 ‘두둑’

####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 시정의 핵심은 ‘사람·생태·문화’

## “따뜻하고 담대한 도전 통해 살기좋은 전주 만드는데 힘 쓸 것”

사람을 향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담대한 발걸음이 시정 곳곳에서 두둑한 성과물로 표출되고 있다. 우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인 ‘론리 플래닛’이 전주한옥마을을 ‘아시아 3대 명소’를 선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229개 지자체에 대한 지역문화지수 조사 결과, 전주가 1위로 문화 으뜸도시로 올라섰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며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책들을 활발하게 펼쳐온 결과물이다. 또한, 사람·생태·문화를 핵심 가치로 정책들을 펼쳐며 눈에 띈 변화를 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감사원에서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또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와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지방재정개혁 최우수기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생산성 평가 3위 등 정부의 20여개 사업·정책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외부 평가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며, 현안들을 보다 강단 있게 풀어나가는 김 시장의 승부사 기질로 일궈낸 결과로 풀이된다. 평소 김 시장은 부드럽고 여러 이미지와는 달리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재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최실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지난달 5일부터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일부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의 일률적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약덕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맞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 상영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김 시장의 철

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해결에 열의를 쥐고 있는 정권의 외압으로 인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세알로월’ 작품전시회를 불허했던 광주비엔날레와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싼 부산 국제영화제 사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선미촌 문화재생산업, 효성부도입대 아파트 문제 해결 등 현안들을 강단 있게 헤쳐가며 ‘조용한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그 기질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희망 좁는 손수레’, 저소득층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동네복지, 청년 건강검진, 생활임금제, 부실채권 소각 등 김승수 시장정책들로 이어졌다. 김 시장은 “정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람·생태·문화를 핵심 가치로 앞으로도 따뜻하고 담대한 도전을 통해 전주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달려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